

# Focus

## '22년 2분기 6대 전략광물 시장전망

\*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요 약

- ▶ 전략광물 시장은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 및 광종별 타이트한 수급상황에 따라 금년 상반기까지 강세가 지속됨. 다만, 미 연준의 양적긴축 등 매파적 정책강화 및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리스크로 향후 하방압력 우세 전망
- ▶ 향후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전략광물의 수급긴장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 신규수요가 자원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연탄과 철광석 등은 중장기 수요둔화 가능성으로 하방압력이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됨
- 동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기대,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 및 칠레, 페루의 대형 광산들의 생산부진으로 시장강세가 지속됨. 다만 `23년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의 Kamaa-Kakula 등 신규/확장 프로젝트 진입으로 공급확대 전망에 따른 하방압력이 예상됨
- 니켈은 4차산업 핵심광물로 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 수요확장세가 가격상승을 견인중이나, 향후 미연준 양적긴축 및 인도네시아의 정제련 생산캐파 확대가능성 등으로 하방압력이 점차 우세해질 전망
- 아연은 전력비용 급등에 따른 메이저 Nyrstar사 등의 정제련 시설의 감산추진으로 공급부족 펀더멘털이 지속되면서 하방압력이 타광종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세 전망
- 철광석은 2월말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로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나, 중국의 철강산업 성장둔화 전망 및 메이저의 저원가 증산전략으로 하락세 전망
- 유연탄은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발 공급망 위협 및 중국의 호주탄 수입규제로 인한 수급차질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년 2분기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저탄소에너지원 선호정책으로 인해 중장기 수요측면의 하방압력 예상
- 우라늄은 전세계적 전력난 지속 및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 이후 과다재고 및 공급과잉적 펀더멘털 제약으로 완만한 하락세 전망

## ■ 미연준 금리인상 가속화 및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하방리스크 전망

'22년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제재 여파로 공급망 충격이 자원시장을 강타하면서 주요국 정부는 “핵심광물 수급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미국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으로 촉발된 강세장이 이번에는 공급충격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핵심광물의 수급부족으로 제품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라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으며, 향후 경기회복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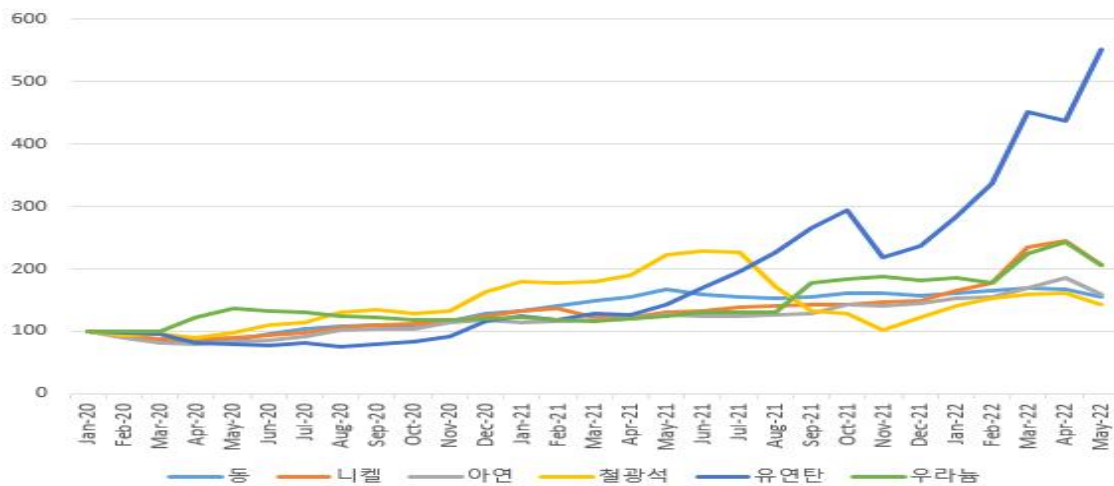
또한 미연준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이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산업경기까지 둔화되면서 2년넘게 지속된 광물자원 강세장도 점차 조정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생산차질 및 2월말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로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미연준은 연일 매과적 긴축정책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원시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자산가격에 하방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최대 자원소비국인 중국은 금년 2분기에 상하이 등 주요 경제도시들의 코로나 봉쇄조치 여파로 전기차 등 주요 핵심산업생산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중국의 GDP 성장전망도 하향조정 되면서 자원소비 유발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과 러시아발 공급망 충격이 점차 완화될 경우 자원시장의 조정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대 전략광물 가격추이 (단위:달러/톤, 우라늄은 달러/파운드)>

구 분	'21.Q1	'21.Q2	'21.Q3	'21.Q4	'22.Q1	'22.Q2 (추정)	전년동기 대비(%)
동	8,504	9,700	9,372	9,699	9,997	9,738	0.4% ↑
니 켈	17,570	17,359	19,125	19,821	26,395	30,282	74.4% ↑
아 연	2,750	2,916	2,991	3,364	3,754	4,026	38.1% ↑
철광석	166.96	197.97	169.39	110.74	140.78	142.73	27.9% ↓
유연탄	85.96	102.47	159.44	173.23	251.45	350.67	242.2% ↑
우라늄	29.51	30.94	35.86	45.46	48.43	55.42	79.1% ↑

금년 2분기 전략광물의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철광석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 광물 5종은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철광석은 작년 2분기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조강생산 둔화로 수요충격을 받으면서 하방리스크가 시장을 제약하였으나, 금년들어 공급망 차질로 인해 톤당 140달러선에서 6개월간 안정적인 가격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세계 생산비중이 높은 유연탄, 니켈, 우라늄 등은 가격상승세가 4분기 연속 지속되는 등 시장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연탄의 경우 2분기 추정가격이 톤당 300달러선을 돌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42%라는 유례없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유연탄 시장은 작년 동절기 이후 전세계적인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 1월 인도네시아의 석탄 금수조치(1개월), 2월말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로 수급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인 호주산 석탄 수입규제로 인해 발전원료 조달을 위한 석탄 증산계획을 발표했으며, 인도의 경우 4월 유례없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전력 위기 여파로 국영기업 Coal India사가 7년만에 석탄 수입을 재개하는 등 가격상승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유연탄의 중장기 수요전망은 약화될 전망이다, 최근의 공급망 충격이 완화될 경우 하방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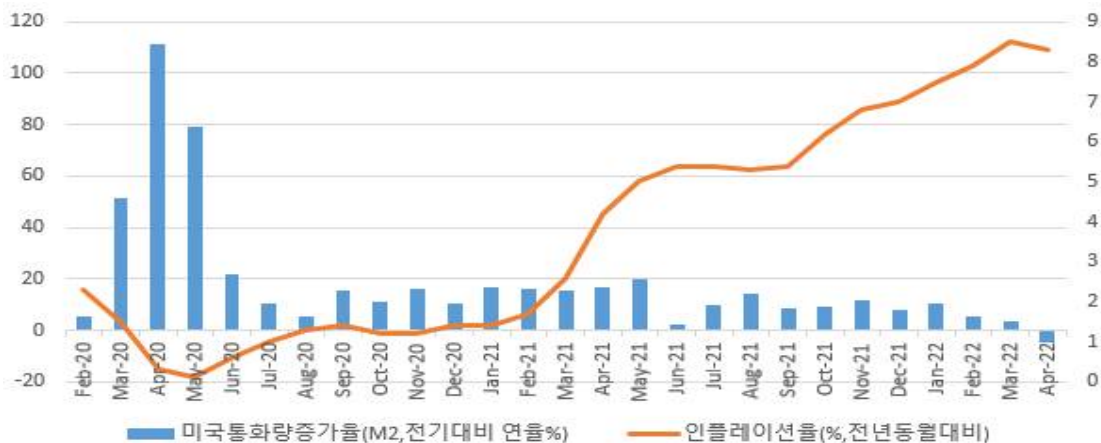
<최근 전략광물의 가격지수('20년1월 = 100인지수) 추이>



니켈은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경제전환 기조로 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수요 창출 전망이 우세해진 가운데 러시아발 공급망 위협까지 겹치면서 2분기 추정가격이 톤당 3만달러선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4%의 상승세가 예상된

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정부주도 니켈 정제련 산업발전 정책에 따라 생산캐와 확대전망 및 가격상승에 따른 신규/확장 프로젝트 진입 등 공급확대 요인들이 상기 상승압력을 점차 상쇄시킬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연의 경우에도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거래소 재고량 감소 등 타이트한 수급상황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정책에 따라 금년 2분기 추정가격은 톤당 4천달러를 돌파하여 전년동기대비 38%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의 경우 작년 2분기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간 톤당 9천달러선에서 박스권 횡보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분기 가격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4%로 타광종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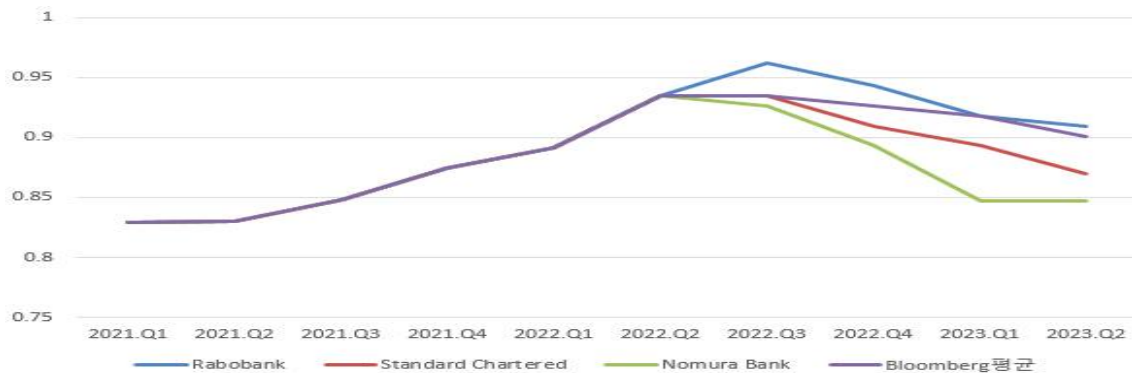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원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미달러가치는 금년 미연준의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 정책 가속화 전망으로 위험자산 기피심리가 확산되면서 광물자원 시장의 하방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금년 3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8.5%로 41년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4월에도 8.3%로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미연준은 물가안정화를 위한 매과적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년 3월 미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정책이 종료되었으며, 5월에는 금리 인상폭을 22년만에 처음으로 50bp까지 끌어올리면서 긴축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연준은 순자산을 매각하는 양적긴축을 6~8월까지 매월 475억달러, 9~12월에는 매월 950억달러 규모로 추진할 전망이어서 자본시장의 유동성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통화량(M2)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추이

Bloomberg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작년 0.25%에서 올해 2.7%, 내년 3.1%까지 인상<sup>2)</sup>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까지 미연준의 금리인상 횟수와 대차대조표 축소규모는 시장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Standard Chartered, Nomura Bank 등 글로벌 분석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미달러가치의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하락세로 상당기간 달러강세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심리 부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물자원 시장에도 가격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의 미달러가치(유로화/달러화) 전망추이<sup>3)</sup>>



두 번째로 자원 최대소비국인 중국의 경기변동 측면을 살펴보면, 금년들어 전력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및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주요도시 봉쇄조치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 2분기는 2.4%(Bloomberg 전망치(6/10일))까지 전망치가 낮게 추정되는 등 산업경기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4월 산업생산은 -2.9%로 코로나 확산시기인 '20년3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중국의 4월 Caixin 제조업 PMI는 46.0으로 26개월내 최저치이며, 생산과 신규주문도 통계집계를 시작한 '04년초이후 두 번째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업경기가 위축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6월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이 봉쇄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진행형이어서 리스크는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자료원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22-14호 ('22. 6월1주차)

2) 자료원 : Bloomberg통신('22.6.10일기준, ECFC 미국 경제전망)

3) 자료원 : Bloomberg통신 2022년 6월10일기준

## &lt;주요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4)&gt;

구 분	'22년	'23년	'24년
Bloomberg 평균(6/10일)	4.4	5.2	5.1
Standard Chartered(6/10일)	4.1	5.8	5.4
JP Morgan Chase(6/3일)	3.7	5.3	-
Morgan Stanley(5/10일)	4.2	5.7	-
Goldman Sachs Group(6/1일)	4.0	5.3	4.4

최근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차질로 주요 기관들은 '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대비 크게 하향시키고 있다. 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4% 초반대를 예측했으며,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22년 GDP 성장률은 3% 후반 ~ 4% 초반대로 종전 대비 0.7%~1.0%p 하향 조정할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성장 구조가 과거 제조업/수출중심 에서 서비스/내수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과 자원소비 유발효과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원시장의 핵심변수인 미달러가치와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1분기 전망과 유사하게 자원시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발 공급망 쇼크로 촉발된 단기적 급등시황도 중장기적 조정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달러가치는 미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횟수 및 양적긴축 규모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재확산 및 전력난 등으로 산업경기가 둔화될 수 있어 자원시장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자료원 : Bloomberg통신 2022년 6월10일기준

**I 광종별 시장전망**

(1) 동은 미연준의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 가속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심리 확산으로 투자수요 측면에서 조정압력을 받고 있으나,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기대,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 및 칠레, 페루의 대형 광산들의 생산부진으로 시장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칠레의 1분기 동 생산량은 128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8% 감소세로 세계 1위 광산인 Escondida, Collahuasi 등 대형광산들의 품위저하, 용수부족 문제가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페루 1위 Las Bambas 광산은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관련 도로봉쇄 시위로 50여일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 다만 4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상하이 등 주요 경제도시들의 봉쇄조치 여파로 산업경기가 둔화되면서 상기 가격상승압력은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금년 2분기 전기동 추정가격은 톤당 9,738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전기대비로는 26% 하락세이나, 전년동기대비 0.4% 상승으로 안정적인 가격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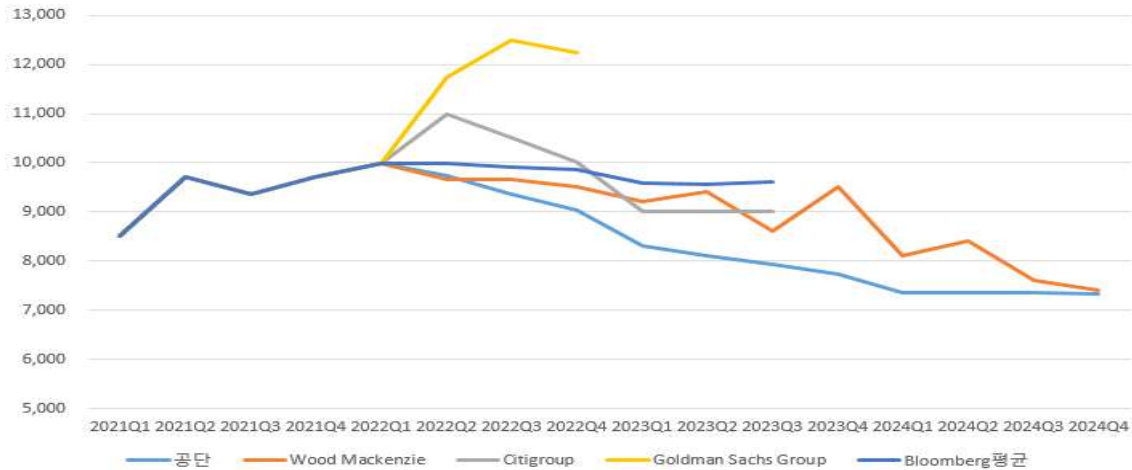
**<정련동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2년6월)>**

구분	'21년	'22년	'23년
정련동 공급	24,749천톤	24,882천톤	25,920천톤
정련동 소비	24,430천톤	24,834천톤	25,656천톤
편더멘탈	공급과잉 (+319천톤)	공급과잉 (+47천톤)	공급과잉 (+264천톤)

Wood Mackenzie사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여파로 동 수요둔화세가 나타났으나<sup>5)</sup>, 하반기 이후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칠레 등 주요국들의 광산생산 부진 및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에 따라 '22년 동 수급 편더멘탈이 공급과잉에서 수급균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당사는 '23년이후 콩고민주공화국 Kamoakakula 확장사업, 칠레 El Teniente 등 노후광산들의 생산개파 확대, 인도네시아 Grasberg 광산의 갱내채굴 전환, First Quantum사의 주력광산인 파나마 Cobre Panama, 잠비아 Sentinel의 증산전망 등 대형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진입효과로 공급량 증가율이 소비량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공급과잉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5) 중국의 금년 4월 동 수입량은 465,33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4% 감소로 '21년11월이후 최저치를 경신함

<주요 기관별 전기동 가격전망 추이>



공단의 전기동 가격예측 모델은 미달리화 가치인 유로/달러 환율, 전기동 소비량 및 공급량 등이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다. 주요 전망기관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금년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전망 및 미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가속화 우려로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가 시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23년이후에는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진입효과로 타이트했던 수급긴장이 완화되면서 전기동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전기동 가격은 내년 이후 톤당 9천달러 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이후에도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공단 ('22.06.10)	Wood Mackenzie ('22.6월)	Citi Group ('22.05.31)	Goldman Sachs Group ('22.05.3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6.10)
2022Q1	9,997	9,997	9,997	9,997	9,997
2022Q2	9,738	9,660	11,000	11,750	9,987
2022Q3	9,362	9,650	10,500	12,500	9,910
2022Q4	9,028	9,500	10,000	12,250	9,865
2023Q1	8,300	9,200	9,000		9,587
2023Q2	8,114	9,400	9,000		9,565
2023Q3	7,937	8,600	9,000		9,601
2023Q4	7,744	9,500			
2024Q1	7,362	8,100			
2024Q2	7,358	8,400			
2024Q3	7,347	7,600			
2024Q4	7,333	7,400			



(2) 니켈의 경우 미연준의 금리인상 등 매과적 긴축정책 가속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월말 러시아발 공급망 충격 및 전기차 배터리 시장확대 전망으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되면서 배터리 핵심원료인 리튬과 함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용 고품위 니켈산업 발전을 위해 저품위 니켈제품(페로니켈, 니켈 선철 등)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급차질 우려가 제기된 점도 가격상승요인으로 지목된다. 6월초기준 상하이 선물거래소(SHFE)의 니켈 재고량은 2,877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 재고량은 70,962톤으로 5주연속 감소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 2분기 니켈 추정가격은 톤당 30,282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4.4%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자동차 생산허브인 Changchun, Shanghai 지역이 봉쇄되면서 4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대비 1/3 감소하였고, 유럽지역의 전기차 판매도 부진하면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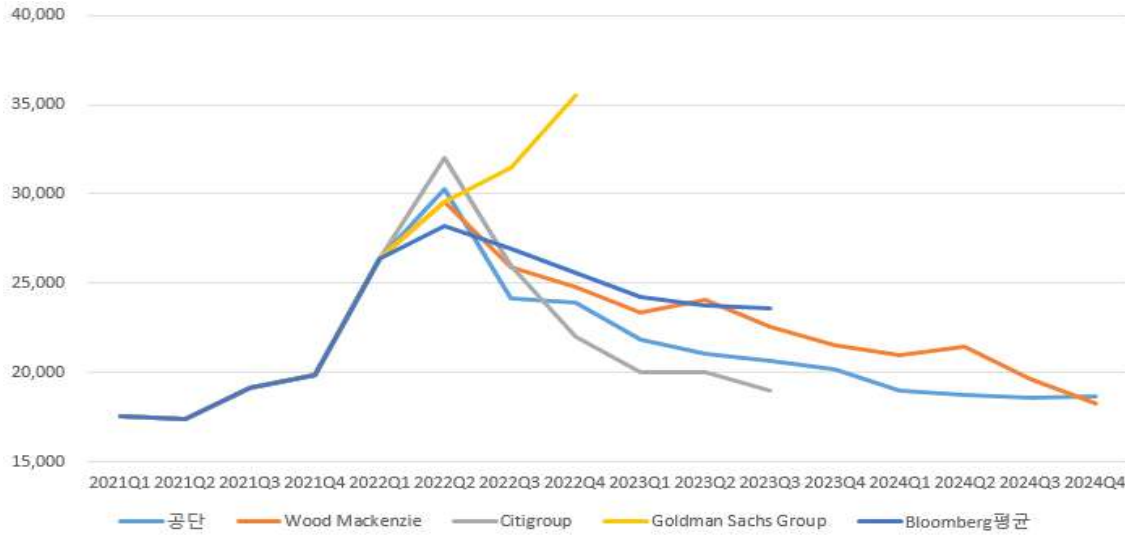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금년 니켈시장은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 및 전기차 배터리 수요확대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전망, 인도네시아의 정부주도의 니켈 정제련 생산능력 확대정책에 따른 증산전망 및 미연준의 양적긴축 가속화 우려에 따른 달러강세화 등으로 상기 상승압력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니켈소비는 3,034천톤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할 전망이며, 스테인리스용 소비가 2,028천톤으로 전년대비 6.9% 증가, 배터리 전구체용 소비가 400천톤으로 전년대비 25.4% 급증하면서 소비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같은기간 니켈공급은 3,069천톤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세로 소비보다 빠른속도로 확장될 전망이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정제련 생산개파 확대로 인니의 광산생산이 1,590천톤으로 전년대비 43.1%의 급증세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니켈 수급편더멘털은 금년부터 수급긴장 완화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면서 가격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련니켈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2년6월)>

구분	'21년	'22년	'23년
정련니켈 공급	2,707천톤	3,069천톤	3,429천톤
정련니켈 소비	2,792천톤	3,034천톤	3,345천톤
편더멘털	공급부족 (-86천톤)	공급과잉 (+35천톤)	공급과잉 (+84천톤)

6) 6월초기준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SHFE)의 니켈 재고량은 2,877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재고량은 71,730톤으로 4주연속 감소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기관별 니켈 가격전망 추이>



따라서 니켈시장은 미연준의 양적긴축 가속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 및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전망으로 수요측면이 제약 받는 동시에 공급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제련 생산캐파 확대에 의해 수급편더멘털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면서 하방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니켈가격은 금년부터 완만한 하락추세를 나타내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톤당 2만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공단 ('22.06.10)	Wood Mackenzie ('22.6월)	Citi Group ('22.05.31)	Goldman Sachs Group ('22.05.3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6.10)
2022Q1	26,395	26,395	26,395	26,395	26,395
2022Q2	30,282	29,546	32,000	29,586	28,175
2022Q3	24,123	25,868	26,000	31,500	26,933
2022Q4	23,873	24,802	22,000	35,500	25,618
2023Q1	21,814	23,332	20,000		24,250
2023Q2	21,051	24,104	20,000		23,755
2023Q3	20,616	22,561	19,000		23,569
2023Q4	20,165	21,495			
2024Q1	19,002	20,944			
2024Q2	18,773	21,458			
2024Q3	18,596	19,621			
2024Q4	18,628	18,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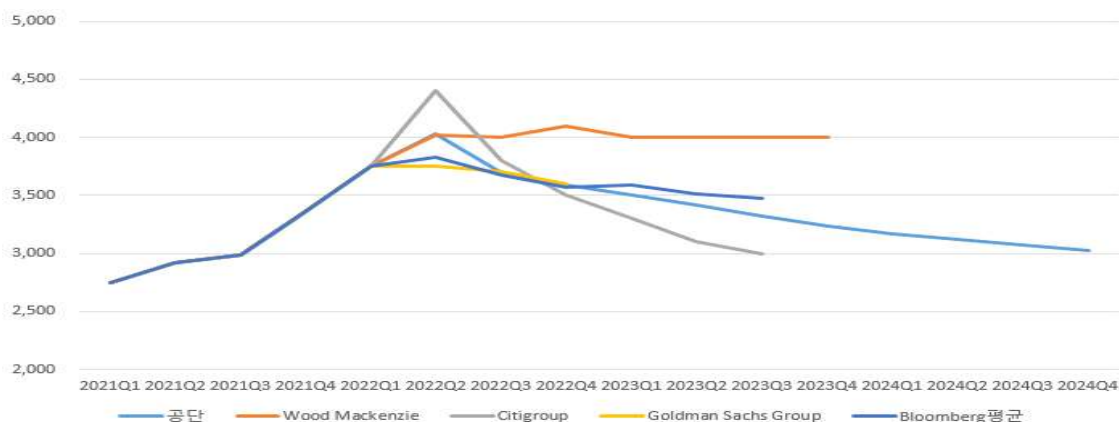
(3) 아연의 경우 작년 4분기이후 원유, 가스의 가격상승으로 전세계적 전력난이 촉발된 가운데 4월말 러시아가 폴란드 및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유럽의 전력가격 상승압력으로 해당지역 아연 제련소들의 생산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2위 Nyrstar사가 유럽내 아연 제련소 3곳의 감산을 추진중이며, 메이저 Trafigura Group, Glencore 등도 감산을 단행하면서 정련아연의 수급상황은 타이트해지고 있다<sup>7)</sup>. 이에따라 금년 2분기 정련아연 추정가격은 톤당 4,026달러로 전기대비 7.2%, 전년동기대비 38.1%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련아연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2년6월)>

구분	'21년	'22년	'23년
정련아연 공급	13,823천톤	13,898천톤	14,476천톤
정련아연 소비	14,064천톤	14,241천톤	14,509천톤
편더멘털	공급부족 (-241천톤)	공급부족 (-343천톤)	공급부족 (-33천톤)

Wood Mackenzie사에 따르면 1분기 전망과 유사하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신규/확장 프로젝트의 부족 및 Nyrstar, Glencore등의 전력비용 급등에 따른 정제련소 감산결정으로 인해 공급증가율은 소비증가율을 크게 밀돌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수급편더멘털은 공급부족분이 전년대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련아연 가격은 공급부족적 편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전망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긴축정책 가속화 우려로 하방압력이 심화하면서 완만한 하향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23년에는 톤당 3천달러 중반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아연 가격전망 추이>



7) 6월1주차 LME의 아연재고량은 84,317톤으로 11주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구분	공단 (‘22.06.10)	Wood Mackenzie (‘22.6월)	Citi Group (‘22.05.31)	Goldman Sachs Group (‘22.05.3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6.10)
2022Q1	3,754	3,754	3,754	3,754	3,754
2022Q2	4,026	4,023	4,400	3,750	3,828
2022Q3	3,695	4,000	3,800	3,700	3,676
2022Q4	3,592	4,100	3,500	3,600	3,572
2023Q1	3,508	4,000	3,300		3,593
2023Q2	3,415	4,000	3,100		3,510
2023Q3	3,324	4,000	3,000		3,473
2023Q4	3,232	4,000			
2024Q1	3,173				
2024Q2	3,119				
2024Q3	3,070				
2024Q4	3,026				

(4) 철광석<sup>8)</sup>은 작년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21년2분기 톤당 198달러로 사상최고가 기록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조강생산이 둔화되면서 수요충격에 따라 하향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금년초 러시아발 공급망 충격과 브라질의 폭우로 Vale사 등 메이저의 생산차질 우려<sup>9)</sup>가 심화되면서 철광석 가격이 재차 반등하면서 금년 2분기 추정가격은 톤당 142.73달러로 전기대비 1.4% 상승하였으나, 사상최고치였던 전년동기대비로는 27.9%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철광석 시장수급 전망(자료원 : Wood Mackenzie, ‘22년6월)>

구분	‘21년	‘22년	‘23년
철광석 공급	2,456백만톤	2,416백만톤	2,446백만톤
철광석 소비	2,496백만톤	2,489백만톤	2,493백만톤
편더멘탈	공급부족 (40백만톤)	공급부족 (73백만톤)	공급부족 (47백만톤)

8) 철광석 가격기준 : 62% 분광 중국 수입가(CFR) 기준

9) 브라질의 ‘22년1분기 철광석 수출량은 72백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세를 나타냄. Vale(6백만톤 ↓), CSN(1백만톤 ↓), Anglo(1백만톤 ↓), Samarco(1백만톤 ↑), 기타(2백만톤 ↓) (자료원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월간자원인사이트 제22-5호 "철광석")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2년 철광석 수급편더멘털은 소비가 24.9억톤으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및 미연준의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 가속화 우려로 전년대비 0.3% 감소할 전망이며, 공급은 24.2억톤으로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차질로 전년대비 1.6% 감소하면서 공급부족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대비 공급감소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방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철광석 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확대 및 중국의 성장동력 전환에 따른 철강산업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공급적인 측면에서 대형 메이저사들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저원가 증산전략으로 인해 하방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철광석 가격은 '22년이후 톤당 100달러 중반선에서 하향추세를 나타내면서 '23년 톤당 100달러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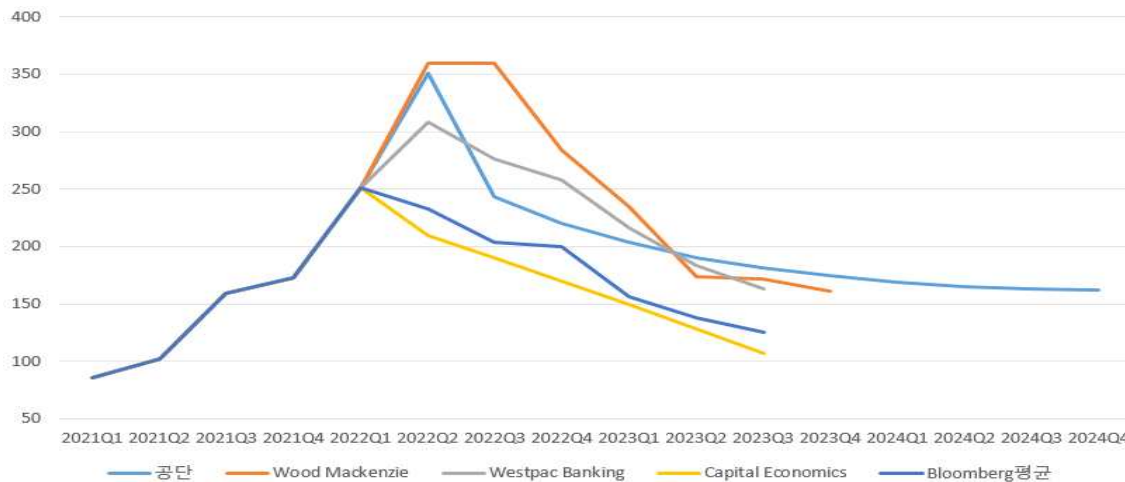
<주요 기관별 철광석 가격전망 추이>



구분	공단 ('22.06.10)	Wood Mackenzie ('22 5월호)	Intersa Sanpaolo ('22.06.09)	Citi Group ('22.05.31)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22.06.10)
2022Q1	140.78	140.78	140.78	140.78	140.78
2022Q2	142.73	140.00	140.00	160.00	133.45
2022Q3	110.56	140.00	144.40	155.00	126.79
2022Q4	101.46	120.00	140.00	140.00	120.85
2023Q1	94.34	110.00	137.00	125.00	110.33
2023Q2	89.81	100.00	135.00	115.00	106.17
2023Q3	87.17	100.00	133.00	105.00	99.50
2023Q4	85.03	100.00			
2024Q1	84.27				
2024Q2	83.64				
2024Q3	83.11				
2024Q4	82.68				

(5) 에너지원 중 하나인 유연탄<sup>10)</sup>은 작년 하반기 원유, 가스 가격급등에 따른 전세계적 전력난으로 가격상승동력을 확보한 가운데 중국의 호주탄 수입금지에 따른 수급차질 및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sup>11)</sup>로 인해 시장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22년2분기 연료탄의 추정가격은 톤당 350.67달러로 전기대비 39.5%, 전년동기대비 242.2%의 사상최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도의 경우 4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석탄수급차질이 심화되면서 국영기업인 Coal India사가 7년만에 석탄수입을 재개하는 등 수입수요가 확대된 점도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3월중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에너지 안보 목적으로 자국의 석탄 생산량 3억톤 이상 증산 및 석탄 6억2천만톤 비축계획을 발표하는 등 증산기조로 중국의 1분기 석탄생산량이 10.8억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세<sup>12)</sup>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경제도시들의 봉쇄조치 여파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기관별 유연탄 가격전망 추이>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2년 유연탄의 해상교역 수입량 전망치는 9.78억톤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며, 수출량 전망치는 9.72억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로 공급이 수요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부족분이 '21년 13백만톤에서 '22년 7백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 가격기준 : Intercontinental Exchange(ICE) 호주 뉴캐슬산 기준(globalCOAL NEWC Index) 6,000kcal/kg NAR

11) 러시아는 '20년기준 석탄생산 세계 6위(5.2%)이며, 인도네시아, 호주에 이어 연료탄 수출 3위국(18%)임

12)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월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한 3.96억톤, 일간 생산량이 1,227만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자료원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월간자원인사이드 제22-5호, 유연탄)

또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수요가 제약받을 전망이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탄소중립 경제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에너지원 선호추세 등을 고려할 경우 연료탄 가격은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하향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료탄 가격은 금년 하반기 이후 하락추세를 형성하면서 '23년경 톤당 100달러 후반선에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공단 ('22.06.10)	Wood Mackenzie ('22. 5월호)	Westpac Banking ( '22.04.22)	Goldman Sachs Group ( '22.03.02)	Bloomberg 예측평균가격 ( '22.04.22)
2022Q1	251.45	251.45	251.45	251.45	251.45
2022Q2	350.67	360.00	308.70	210.00	232.43
2022Q3	243.43	360.00	276.70	190.00	204.18
2022Q4	220.59	284.00	258.30	170.00	200.32
2023Q1	203.42	235.00	216.70	149.38	156.52
2023Q2	190.34	174.00	183.30	128.13	138.41
2023Q3	181.57	172.00	163.20	106.88	125.56
2023Q4	174.53	161.00			
2024Q1	168.77				
2024Q2	165.29				
2024Q3	163.41				
2024Q4	162.67				

(6) **우라늄<sup>13)</sup>**의 경우 과다채고 및 공급과잉적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메이저 Cameco사와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Kazatomprom사의 감산결정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전세계적 전력난 심화 및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로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핵연료는 농축 우라늄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금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여파로 보험비용 증가, 항만운송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산 핵연료에 대한 국제제재가 실행될 경우 현저한 공급부족에 직면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sup>14)</sup>. 이같은 상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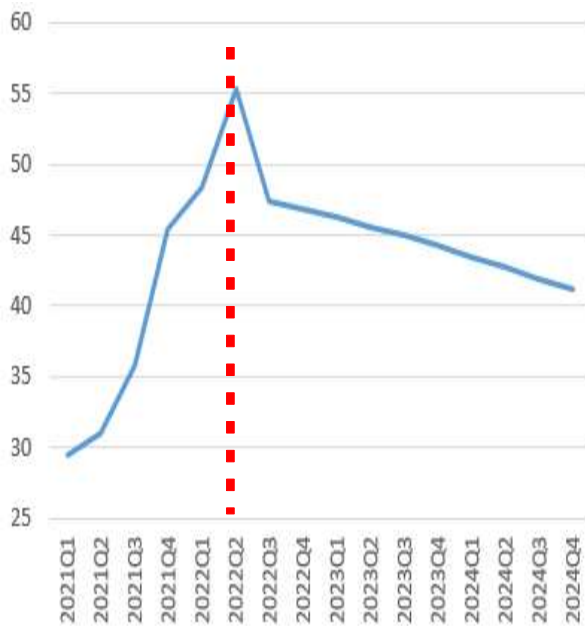
13) 가격기준 : Nuexco 현물가격지수 기준

14) 자료원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월간자원인사이트 제22-5호, 우라늄

반영하듯 금년 2분기 우라늄 추정가격은 파운드당 55.42달러로 전기대비 14.4%, 전년동기대비 79.1%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향후 우라늄 가격은 국제유가의 추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둔화 전망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전망에 따라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가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우라늄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파운드당 40달러 대에서 박스권 회보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가격전망(달러/파운드) 추이>



구분	공단 ('22. 06. 10)
2022Q1	48.43
2022Q2	55.42
2022Q3	47.43
2022Q4	46.87
2023Q1	46.27
2023Q2	45.63
2023Q3	44.95
2023Q4	44.24
2024Q1	43.51
2024Q2	42.74
2024Q3	41.95
2024Q4	41.14



※ 참고자료 : 연도별 해외기관 가격전망 (자료원 : Bloomberg 6월10일)

동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9,940	9,628	10,153
Citi Group	10,375	9,000	9,500
Westpac Banking	10,075	9,208	8,290

니켈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26,766	23,970	23,211
Citi Group	27,085	19,500	19,000
Westpac Banking	30,282	22,000	18,508

아연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3,682	3,384	3,181
Citi Group	3,860	3,100	2,700
Westpac Banking	3,939	3,288	2,671

철광석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128.92	101.83	99.60
Intersa Sanpaolo	141	130	128
Fitch Solutions	120	110	100

유연탄

구 분	'22	'23	'24
Bloomberg평균	218.54	147.88	116.67
Fitch Solutions	230	180	150
Westpac Banking	281	179	101